

■ 특특뉴스

제주항공, 사전주문 기내식 출시

제주항공이 국제선 확대에 따라 비건 기내식 등을 포함한 신규 사전주문 기내식 4종을 출시하고 제주도 특산품의 국제선 판매 확대에도 나선 등 기내식과 에어카페 분야에서의 ESG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육류제품을 식물성으로 대체해 탄소 발생을 낮춘 동물복지 제품인 비건 함박스테이크를 출시, 돈육 김치 짜글이와 함께 지난 1일부터 인천발 국제선 사전주문 기내식으로 등록 및 판매하고 있다. 사전주문 기내식은 제주항공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하다. /오지현 기자

■ 그래픽 경제

중고령자 삶의 만족도 변화

만 40세이상 중고령자 삶의 만족도 지수
(표본:1인가구 1,378명 / 2인 이상 다인가구 6,382명)



“혼자 사는 중고령자, 만족도 낮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흥성표 가톨릭대 조교수와 임한려 서울대 연구교수는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중고령자 1인가구 삶의 만족도 변화 및 영향요인 분석' 결과를 게재했다.

중고령자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지수는 2017년 3.42→2018년 3.44→2019년 3.43→2020년 3.36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친환경 에너지 선도…탄소중립 조기 달성”

힘내리! 중소기업

(주)세진엔지니어링

전기·소방·기계설비·종합감리
4차산업 신재생에너지분야 주도
조달청 자사 제품 추가등록 포부
지역 기부문화 확산 역할 '특특'



박찬갑 (주)세진엔지니어링 대표가 2002년 설립 이후 받은 상장과 상패들을 들여보이고 있다.

“혁신적 기술개발, 우수한 인재양성, 진취적 미래지향화를 바탕으로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17일 (주)세진엔지니어링 박찬갑 대표이사는 “4차산업혁명시대 친환경 에너지 발전을 선도하겠다”며 위와 같이 포부를 밝혔다.

지난 2002년 설립된 세진엔지니어링은 신재생에너지 분야(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풍력)와 전기(설비), 소방, 통신, 종합감리, 토목공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9개의 자회사와 2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지역 대표 기업이다.

2004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시작으로 융복합 지원사업, 공공기관 태양광보급사업, RPS발전사업 등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맞춰 신재생에너지분야에 앞장서고 있는 세진엔지니어링은 지난 2017년 나주 혁신산단 3,500평 규모 부지에 공장을 신축해

전력량계, 파형관, 전기차충전기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를 통해 신산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조달청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세진엔지니어링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은 화재차단 및 우회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는 고장을 자동으로 감지해 경보를 알리는 동시에 이상 전류가 발생할 경우에도 발전을 중단시키지 않고 예비선으로 우회시키는 기능으로, 경제적인 효과 및 안전사고, 화재예방 등을 장점으로 인정받아 지자체 및 공공서 등에 납품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진엔지니어링은 신재생에너지 및 산업발전 유공자로 대통령상 수상, 한국에너지

공단 우수기업 선정, 중소기업부장관 표창 등 다양한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영업에서 태어나 송원고, 조선대 대학원 전기공학과 석사를 졸업, 한국전력공사 차장직을 지냈던 박찬갑 대표는 회사 설립 초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박 대표는 “회사 설립 초기에는 신재생에너지가 보편화되지 않아 수요도 낮았다 다양한 민원 발생과 자재 공급 난항에 자금난을 겪기도 했다”며 “하지만 친환경에너지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업종 다양화 등을 추진해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했다. 사업 아이템이 시대적 흐름과 맞물린 것도 한 몫 했다고 생각한다. 한 마디로 천운을 맞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진엔지니어링은 ‘광주·전남에 뿌리를 두고 성장한 만큼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이념으로 일자리 창출, 우수인재 양성 등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박 대표는 국제로타리클럽,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터티’에 가입해 직접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서구청 스마트도서관 구축 기부 ▲동·서·남구 인재육성 장학금 기부 ▲북구청 희망나눔캠페인 기부 ▲세계재생에너지총회 기부 ▲국제로타리 장학문화재단 기부 등 수십 차례 선정을 통해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그는 “경제적 여유가 생겼음에도 항상 마흔 구석에 허전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 빈자리를 기부와 봉사로 통해 채울 수 있었다”면서 “또, 여러 명이 모여야 기부가 가진 시너지가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다수가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세진엔지니어링이 미래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광주·전남이 에너지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장기 플랜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갑 대표는 “가장 먼저 직원들의 복지 증진으로 살맛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 조달청에 우리 제품을 추가로 등록하고 싶다”며 “또한, ‘세진엔지니어링 제품과 기술은 최고’라는 칭호를 얻어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기회가 된다면 복지와 관련된 재단을 설립해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글·사진=홍승현 기자

광주은행, 제4회 ‘SNS 광은스타’ 공모

9월 16일까지 접수

광주은행이 제4회 직원대상 동영상 공모전 ‘SNS 광은스타’를 개최한다.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올해 네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일반형과 캠페인형 두 부문으로 진행된다.

일반형 부문은 광주은행의 브랜드 이미지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콘텐츠를, 캠페인형 부문은 광주은행 캠페인송의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오는 9월 1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광주은행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 공식 페이지에 게시돼 고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소통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은행장 표창 및 상금의 기회도 주어진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연령이나 관심사별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또는 여러 SNS 매체의 라이브 방송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 산업 또한 다양한 소통을 기반으로 브랜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이제는 성별·연령·직업군으로 고객층을 단순하게 분류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까지 반영해 기존의 틀에 박힌 정보전달식의 마케팅이 아닌 고객의 감성에 공감하고 트렌드를 반영해 함께 소통하는 생활밀착형 금융마케팅이 중심이 되어 한다”며 “지역민과 고객에게 금융 지원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지방은행의 한계를 뛰어넘는 디지털 소통 역량 강화를 통해 광주은행의 브랜드 이미지를 전임 직원이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www.hinuri.co.kr

부동산개발 | 분양마케팅 전문 디벨로퍼 그룹 하이누리

HI-NURI 하이랜드(주) HI-NURI (주)누리산업개발 HI-NURI (주)나로디엠씨 HI-NURI (주)하이누리

모두가 같은 길을 걸을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찾습니다.
모두가 한곳을 바로보고 있을 때 새로운 시선으로 숨겨진 길을 찾아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차별화된 접근과 전략으로 성공 분양으로 가는길,
부동산개발 | 분양마케팅 전문 그룹 하이누리가 해내고 있습니다.



회장 김 동 기
광주·전남 부동산학 박사1호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1대, 2대 호남지회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한국 부동산 분양마케팅협회 호남지회장
광주광역시·광주도시공사 자문위원
분양상담사 법정교육 전임강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전임강사

